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강 맑 실
사계절출판사 대표

“언니이, 기다릴게요~.”
“그래에, 곧 갈게에~.”
아니, 이것은 1961년에 만들어진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옥희 말투 아닌가. 60년대의 서울 말씨와 흡사했다. 집에서 꺼여 정신을 차려 보니 내가 있는 곳은 개성공단의 컨테이너 숙소였다. 잠결에 아련히 들리던 말소리는 개성공단의 여성 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였다.
전날인 2005년 6월 6일, 나이에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벼초 홍명희의 ‘임꺽정’ 저작권 사용료 지불 건으로 ‘임꺽정’의 저작권자인 작가 홍석중(저자 홍명희의 손자) 선생을 만나러 개성공단에 도착한 것이다. 그것도 늘 꿈에 그리던 대로 일행들

자남산 여관에서 받은 단풍잎 한 장

과 함께 직접 봉고차를 몰고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를 지나, 비무장지대를 지나, 북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절차를 밟고 개성공단까지 갔다. 가는 내내 박찬 마음에 자꾸만 눈물이 솟구쳤다.
분단의 철조망을 치우고 홍석중 선생을 처음 만난 순간, 우리는 서로 뜨겁게 포옹한 채 말을 잃었다. ‘임꺽정’ 저작료 지불은 제작 부수를 밝히는 일이 우선이었다.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20여 년간 제작 상황을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 온 열 권의 장부를 협상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다. 그러나 홍석중 선생은 “강 대표의 말을 믿지 될 민것습니까?”라는 말과 함께 그걸 들춰보지도 않았다. 신뢰의 끈이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선죽교 근처의 자남산 여관 회의장에서 맺은 협상은 그렇게 우리 쪽 제안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다음해인 2006년 6월 5일, 남북 최초로 북측의 저작권자인 홍석중 선생과 남측의 출판권자가 평양에서 만나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른 나라들과는 출판 계약을 자유롭게 하면서 정작 한 민족끼리는 저작물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고, 저작물 계약을 상

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동굴 같은 세월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개성의 4층짜리 자남산 여관은 남북 고위급 회담은 물론 수많은 민간 교류 차원의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던 곳이다. 2004년 경제특구로 만들어진 개성공단은 단순히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땅과 값싼 노동력이 만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경제적 의미만을 지닌 곳이 아니다.
남북의 민간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알아 나가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을 풀어 가면서 신뢰를 구축해 간, 어쩌면 평화통일을 연습하는 운동장 같은 곳이었는지 모른다. 2007년, 금강산 관광에 이은 개성 관광으로 남북은 반세기만에 걸친 분단의 장벽 한쪽을 허물고 화해의 미소를 나누었다.
정권 초기 대북 정책으로 평화통일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웠던 정부는 지난달 10일, 개성공단을 핵·미사일의 자금원이라고 자폭하며 전격적으로 폐쇄했다. 대북 정책이 누구보다도 강경했던 이명박 정권조차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

진 않았다.
왜 그랬을까. 개성공단 폐쇄는 어떤 효력으로 발휘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긴장과 피해만을 안겨줄 뿐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될 리는 더더구나 없다. 핵 실험을 중단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봉기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대화와 소통의 상대자로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게 아닐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갑자기 고도화된 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자금 때문이 아니라 2008년 이후 6차 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어느 글에서도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남북은 개성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 개성공단이 지닌 평화통일을 향한 상징성을 무참히 짓밟은 채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홍석중 선생이 자남산 여관 뜰에서 나에게 준 붉은 단풍잎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책갈피 속에서 퇴색하지 않고 그리움의 빛깔을 더해가고 있다.

종교칼럼



연 광
증심사 주지·광주불교연합회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관념이나 고집에 사로잡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자기 관념의 틀에 세상을 꿰맞추려 듭니다. 자기 관념의 틀로 이해가 될 때에는 세상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다가도, 자기 관념의 틀에 세상이 맞지 않으면, 당장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한탄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옷을 맞춰야 하는데, 옷대에 사람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어리석은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지, 세상은 어리석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더위로 짜증을 내고, 조금만 추위로 히터를 켜야된다고 난리지만, 변덕

삶이 힘든 이유

을 부리는 것은 사람일 뿐, 날씨는 자극럼 늘 그랬습니다. 늘 맑기만 해도 살 수 없고, 늘 비만 와도 살 수 없습니다.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어서 지금의 우리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구에 맞지 않는다고, 비가 오고, 덥고 추운 것을 시비(是非)해서 난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해서 결국 자신을 괴롭힙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시기하고, 우울해 하는 이러한 어두운 감정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이고 괴로움(苦痛)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하고 학대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데,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만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욕심 많은 사람이 어찌 나눔과 베풀을 말할 수 있으며,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어찌 사랑과 자비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지혜로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남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고집하고, 자

기 것만을 고집하고,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자기 학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음식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 배부른 사람이 먹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맛에 집착하거나, 그 습관에 사로잡혀 해로운 먹을거리를 찾고,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 자신의 건강을 해지곤 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먹고 소화제를 찾고, 많이 먹고는 살을 빼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많이 먹고 배탈이 나고, 많이 먹고 살이 찌서 병원에 가서 지방제거 수술 받고 등등,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집에서 아내를 봐도 답답하고, 남편을 보면 숨이 막힐 것 같고, 게임에 빠져 있는 자식을 보면 세상의 낙이 없는 것 같고, 지하철이나 기차 안에서 큰소리로 전화하는 사람을 보면, 가서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고, 온통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거리가 많은 것이 이반만 그럴까요? 살아가면서 “이 것만 해결이 되면, 이제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바빠지고, 살면 살수록 복잡해집니다. 자유로워지기는 커녕, 걸리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쳐서, 내가 편안해지겠다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리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생뿐만 아니라 내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시대 임금이나 현시대 대통령, 정치인들이 공약만 지켜도 이 나라는 진작 ‘선진국’이 됐을 겁니다. 세상은 복잡하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모르니까 세상이 복잡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알면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보닛(bonnet)을 열어보면, 어지러이 얽히고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부설연구소는 정관에 ‘전반지소 설립’ 규정을 신설하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전남 연구센터’ 등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내 조직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해양수산개발원 광양연구소엔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광양항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 광양시도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시작으로 토론회 개최, 협력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대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
광양항 활성화는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해양수산개발원 광양연구센터가 반드시 설치돼 광양만권, 더 넓게는 전남과 대한민국 서남해안권의 해양·물류·수산산업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15만4000명 광양시민과 190만 전남도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社 說

선심성 공약 말고 지역 발전 방안 강구해야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 등 여야 각 정당들이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등은 후보 공천과 함께 민심 선택의 잣대가 되는 정책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탓에 정당의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이 한 톨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10만~20만 원씩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려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어르신 빈곤 제로(Zero) 시대’를 주제로 노인복지 공약을 선보였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발전 관련 공약은 전무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선심성 공약으로 발등에 떨어진 표 모으기에 몰두하면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회가 여제 총선에서 지방자치 발전 공약을 내걸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 폐지’ 이행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 재정 확충을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주문이다.
정치권의 부당한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도 거듭 주장했다.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6%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에서 21%로 각각 늘려 지방 살림살이의 주름을 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제 유권자들도 자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지지를 보냄으로써 지역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하겠다.

외국인 범죄 예방 위해 불법체류 관리 강화를

광주·전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범죄 유형 역시 다능적인 데다 흉포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형사 입건된 외국인은 총 46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통사범이 109명으 가장 많았지만, 강도(1)·성폭력(16)·절도(34)·폭력(101명) 등 강력범도 상당하다. 외국인 범죄는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2011년 202명, 2012년 319명, 2013년 351명, 2014년 368명, 지난해 467명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출입국관리소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광주·전남에는 6만436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는 등록 외국인이 1만8371명, 외국 국적의 동포 거소신고자 2586명, 외국인 배우자 체류 3309명 등 총 2만4266명이고 전남에는 등록 외국인이 3만399명, 동포 거소신고자 2980명, 배

우자 6722명 등 4만101명이다. 여기에 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7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들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흉포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북부경찰이 9일 긴급체포한 케냐 국적의 난민 신청자 M(28)씨 역시 젓가락을 이용해 PC방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가 강제출국 조치한 캄보디아인 16명은 불법도박장을 개설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다.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급선무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이미 21만 명을 넘어섰지만 단속률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번 케냐 출신 난민 처리 금지에 불린 외국인들이 쉽게 강력범죄를 저지르곤 한다. 따라서 정당하게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게 하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그리스 신화에서 ‘영의 여신’으로 불리는 디케(DIKE)는 수많은 그림과 동상에서 왼손엔 천칭(저울)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든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천칭은 ‘악자에 강하지 않고 강자에 약하지 않은 형평성과 공정함’, 그리고 같은 ‘실행되어야 하는 정의와 엄격한 형벌’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특이한 것은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

는 얘기다.
물론 어느 해석이 맞느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재판의 결과로 판단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지금도 인구강자에 약하지 않은 형평성과 공정함’, 그리고 같은 ‘실행되어야 하는 정의와 엄격한 형벌’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특이한 것은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

디케의 저울

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다른 해석도 있다. 첫 번째가, 눈을 감고 저울을 보는 어리석음을 풍자한다는 것이다. 원래 디케의 그림이나 동상에선 눈을 가리지 않았지만, 유럽 중세시대의 독일 풍자극에서부터 눈을 가린 디케가 등장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해석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신이 눈을 가린 채 원고와 피고자 저울에 올린 뇌물의 무게를 달아 보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시각이다. 누가 더 많은 이권, 뇌물, 이해관계를 제공하고 있는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친분·계파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전윤철 공직후보 추천관리위원장에게 천칭을 선물로 주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천칭에는 ‘공정한 공전을 통해 한국 정치를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야 각 당의 공천 심사위원들이 천칭의 의미를 되새겨 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홍형기 정치부장redplane@

기 고



정 현 복
광양시장

광양항이 위기라고 한다. 최근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인천항에 추월당해 3위로 밀려났다. 국내 항만뿐 아니라 세계항만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상존하는 위기와 경쟁을 이겨낼 돌파구는 무엇인가? 항만·물류 전문가들은 광양항 경쟁력 강화의 장기적 전략으로, ‘해운·항만·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관 설치’를 꼽는다. 최근 광양시가 전남 지역 해양수산 정책수립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센터’ 유치를 적극 검토한 이유다.
1986년 개항 이후 2015년 기준 광양항 전체 물동량은 약 2억7000만t으로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 부동의 2위다. 하지만,

해양수산개발원 광양연구센터 설치 절실하다

전남권 항만·해운·물류분야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있으나 관련 연구부서 및 전문가 부재로 중장기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반면 부산은 국제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항만·해운·물류연구를 위한 조직과 전문가를 갖추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컨퍼런스, 세미나, 박람회를 유치·개최하여 부산항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남해안권 항만 역할 강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G2로 부상한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항만·물류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과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광양항, 목포항, 군산항 등 호남권 항만의 발전전략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루 빨리 항만·해운·물류를 통한 동서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과 기업유치를 통한 물동량, 고용,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광양항 활성화가 절실하다.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따라 화학, 철강, 자동차부품, 식료품 등

의 산업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돼 광양항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수산·해양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소 설립도 빼놓을 수 없다. 전남 해양면적은 2만6450㎢로 육지면적의 2.2배에 달하고,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남해안 갯벌 중 42%를 점유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수산물 생산량 전국 1위(117만2000t)로, 천해양식 어업도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해양수산자원의 보고(寶庫)다. 리아스식 해안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도 풍부해 해양관광 최적지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남의 수산 관련 행정은 전통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R&D 강화와 투자 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와 해양연구본부를 광양연구센터로 유치해 수산분야 정책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연구소는 해양수산개발원의 전남본소(광양본소)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 1997년 4월 설립돼 지난해 부산시로 본사를 이전한 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외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 과제 연구와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